광주 식수원 동복댐·주암댐 고갈 심각

봄·여름 이어 가을 가뭄 지속
저수율 최근 10년래 최저치
수돗물 절수 운동 참여 절실

봄·여름 가뭄에 이어 가을철 가뭄까지 지속되면서 광주 주요 식수원이 말라가고 있다.

광주시는 수돗물 저하와 공급차질 등을 우려해 시민에게 절수 실천을 당부하고 있지만, 내년 봄까지 큰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수돗물 수질 저하와 함께 공급 차질 등이 우려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연일 지속되는 가뭄 및 부족한 강수량으로 광주시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과 주암댐의 고갈현상이 심각하다. 올해 마른 장마와 마른 태풍으로 두 댐의 저수율은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상태로, 앞으로 가을·겨울철 갈수기에 따라 당분간 다량의 강우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 지난 4일 기준 동복댐 저수량은 3600만㎥로, 예년 대비 48% 수준이며, 수돗물 공급 가능 일수도 154일 정도에 불과하다. 주암댐 저수량 역시 1억8600만㎥으로 예년 대비 58% 수준이다. 주암댐도 수돗물 공급 가능 일수는 213일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물 부족 현상에다 두 댐의 사용 가능일수 편차마저 커 용수사용량 조정 등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부터 지난 6월까지 강수량을 적용하면 동복댐은 2023년 6월, 주암댐은 2023년 8월까지만 사용 가능하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이 같은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8월 30일부터 주암댐을 가뭄 '심각' 단계로 격상했으며, 수용가별 수요관리, 대체공급 등을 통해 생활·공업 용수의 20% 자율급수조정 등 절수대책에 나서고 있다. 동복댐 역시 저수율이 낮아짐에 따라 비상급수대책을 추진 중이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도 월 1만톤 이상 수돗물을 소비하는 다량급수처를 대상으로 물 절약 실적을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관리부서간 협의를 통해 지하수 및 중수도 등 물 재이용 활성화와 수돗물 사용량 절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유수율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는 노후수도계량기를 교체하고 누수탐사를 강화해 땅으로 스며드는 수돗물을 줄이고, 긴급순회점검으로 상수도관 인접공사 손괴 방지 등에 따른 수돗물 낭비 사례 등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시민을 대상으로 수돗물 절수 운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 5개 구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민에게 가뭄의 심각성을 알리고, 방송 등을 통해 각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물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정삼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동복댐과 주암댐의 저수율이 낮아 큰 비가 오지 않는다면, 평균치도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양변기 수조에 물 채운 페트병을 넣거나 몰아서 세탁하기, 샤워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등 일상 속 작은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도 일상 속 물 절약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노벨 화학상에 베르토지·멜달·샤플리스

올해 노벨상 화학상 수상자로 캐롤린 R. 베르토지(미국), 모르텐 멜달(덴마크), K.배리 샤플리스(미국)가 선정됐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생체직교 클릭 화학'(click bioorthogonal chemistry) 분야에서의 공로를 인정, 노벨 화학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이날 화학상에 이어 6일 문학상, 7일 평화상, 10일 경제학상 수상자를 차례로 발표한다.

앞서 3일에는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진화유전학자 스반테 페보(스웨덴)가, 4일에는 물리학상 수상자로 알랭 아스페(프랑스), 존 F. 클라우저(미국), 안톤 차일링거(오스트리아) 등 3명이 각각 선정된 바 있다.

노벨상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이 낀 '노벨 주간'에 스웨덴 스톡홀름(생리의학·물리·화학·경제·문학상)과 노르웨이 오슬로(평화상)에서 열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상식이 축소되거나 온라인 행사로 대체됐던 2020년과 2021년 수상자까지 이번에 함께 자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위험도 2주 연속 '낮음'

국내서 신종 BF.7 변이 검출 긴장

코로나19 여름 재유행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위험도는 2주 연속으로 '낮음'을 유지했다. 다만 유럽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신종 BF.7 변이가 국내에서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주(9월 4주·9월 25~10월1)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했다고 5일 밝혔다. 방대본은 "신규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대응 역량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9월 3주(9월18~24)에 이어 '낮음' 평가를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BA.5 변이의 하위 변이인 BF.7 변이도 15건 확인됐다. BF.7 변이에서 면역 회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이가 관찰된 만큼 방대본은 국내외 사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 "겨울철 유행 이후 단계적 완화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또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관련해선 "당분간 감소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12~3월 정도 재유행이 예상된다"며 새로운 변이 BA.2.75.2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인구 대비 공연전시 횟수
광주 '상위권'·전남 '하위권'

인구 대비 각종 공연·전시 횟수가 전국 시도 중 광주는 상위권을, 전남은 하위권을 나타냈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문화예술 활동 실적의 경우 광주는 41.6건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4위를 기록했다. 전남은 23.2건으로 12위, 하위권이었다.

전국 평균은 29.8건으로 서울(57.3건), 전북(48.1건), 대구(43.0건)가 1~3위였다.

인구 10만명당 문화예술 활동이란 해당 지자체 인구 대비 각종 공연·전시 횟수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접촉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늠자다. 반면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2021년 기준)은 광주의 경우 74곳으로 15위를, 전남은 228곳으로 4위를 각각 기록했다. 경기(569곳), 서울(429곳), 강원(235곳)이 1~3위를 나타냈다.

문화기반시설이란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을 통틀어 일컫는다.

이개호 의원은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심화시켜 지방소멸 문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문화 격차 해소를 통한 지방소멸 대응 방안 보완을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K-밀리터리 페스티벌 태권도 격파시범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K-밀리터리 페스티벌 문화공연에 참여한 지상작전사령부 1군단 태권도 시범단이 격파시범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 원로' 김동길 명예교수 별세…향년 94세

민주화운동 하다 보수논객 변신

보수진영 원로 인사인 김동길 연세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지난 4일 별세했다. 향년 94세.

5일 유족에 따르면 숙환으로 입원 중이던 김 교수는 전날 밤 10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고인은 지난 2월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회복했지만, 3월부터 건강이 급격히 악화해 입원 뒤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못했다. 1928년 평안남도 맹산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6년 월남해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미국 에반스빌대와 보스턴대에서 각각 사학과 철학을 공부해 문사철(文史哲)을 섭렵했고 100권 안팎의 저서를 남겼다.

연세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회운동·현실정치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군부독재 시절 사회·정치 비판적인 글을 쓰다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도 연루되며 대학에서 두 차례 해직됐다.

이후 민주화운동과 거리를 둔 고인은 1991년 강의 도중 강경대 치사사건을 비하하는 언급을 했다가 학생들 반발에 강단을 떠났다.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창당한 통일국민당에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나비 넥타이와 콧수염을 트레이드 마크로 삼은 고인은 1980년대 정치평론을 하면서 '이게 뭡니까'라는 유행어를 남겼다. 말년에는 보수진영 원로이자 보수논객으로 활동했다. /연합뉴스

高 조대부고 2022 조대부고인 총동창회 어울림 한마당
■ 일시 : 2022. 10. 16(일) 09:30
■ 장소 : 모교운동장
■ 전화 : 062-224-1461
초대가수 유지나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김 광 태

특수 경매에 관한 모든 것!
오천경매. 010-3605-5000

임야 삽니다 지분환영
맹지사절. 010-3605-5000

발생암매각공고

1. 입찰건명:발생토석 매각
호남고속철도2단계 5공구에서 발생된 토석 약 160,000㎥(자연상태 모암 기준) 단, 현장 사정에 따라 전체 수량이 변경(증,감) 될 수 있음.

구 분	단위	토사	풍화암	연·보통암·경암	합계	비고
수량	㎥	-	-	160,000	160,000	작업구,자연환기구

2. 현장설명회,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장소 : 호남고속철도2단계 5공구 현장사무실)
가. 현 장 설 명 회 : 2022년 10월 12일 나. 입찰등록마감일 : 2022년 10월 17일
다. 개 찰 일 시 : 2022년 10월 18일 라. 낙 찰 자 선 정 : 2022년 10월 19일
3. 입찰방법 : 일괄 매각 입찰
가. 낙찰자결정 : 1㎥당 원석대가 최고가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최고가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운반거리가 가장 가까운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계약대리인의 운반거리 산정 방법에 의함)
*설계운반거리(L=2.9㎞)를 초과하는 추가운반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추가운반비용에 대한 단가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로 산정함.
나. 입찰 참가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을 시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4. 계약착수 및 완료일
계약일로부터 ~ 2025년 12월 31일
5. 입찰 참가 자격
가. 암매각의 경우
1) 입찰공고일 현재 골재채취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산림골재채취업 또는 골재선별·파쇄업으로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춘 사업자로서, 현설일 현재 개발행위 준공허가를 득한 반입장을 구비해 상시반입(24시간)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사업장 관련 인허가 서류를 현장설명시 제출하여야 한다. (야적장 및 골재 생산시설 위치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발생암처리가 가능한 충분한 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나. 공통사항
1) 현장설명일 기준으로 세금이 체납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현장설명 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 시 제출한 사업장(야적장 및 골재 생산시설)은 발파암 반입, 골재생산 등을 진행함에 있어 각종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야 함
6. 입찰업체 제출서류 (입찰관련 서류는 현장설명회 참석시 제출)
가. 반입장(골재생산시설 및 야적장) 위치가 명확히 표시된 위치도 1부
나. 골재 선별·파쇄업 사업자 등록증 및 골재 파쇄 신고수리증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라. 시국세 완납증명서 1부
마.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및 재직증명서 1부
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현장설명서, 계약조건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
나. 기타 상세한 사항 문의처(현장접수만 가능)
• 매 각 자 :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 계약대리인 : ㈜태영건설 (전남 무안군 청계면 서호로 358)
• 기타 문의 : 시공사 ㈜태영건설 061-454-5557
감리단 ㈜케이알티씨 061-454-5509

2022년 10월 6일
호남고속철도2단계(고막원~목포) 제5공구 건설공사
계 약 대 리 인

중앙신용
꼭! 받아야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사망으로 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63 - 9번지 264.8㎡
963 - 10번지 254.2㎡
963 - 11번지 225.8㎡
963 - 12번지 195.0㎡
합 계
939.8㎡ 구 (284.3평)
매매가 71억원
일반상업용지 용적율 1,100%
사옥 및 메디컬센타 신축 부지 적합
(주) GK파트너스 컨설팅 010-3625-1362

판 결 공 시

•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고단191 사기
• 피고인 : 조규용

위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2년 9월 2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이종기

분 실 공 고

• 분양계약서, 발코니확장공급계약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공급계약서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36-8번지 일원 남구 진아리채 리센츠 101동 1802호
• 계약자 : 송 대 근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2년 10월 6일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구 •동 광266-1920 •문 흥266-1960 •북광주 525-3761 •신 안222-8171 •양 산571-7658 •오 치266-7601 •용 봉433-1503 •우 산433-1503
동구 •남 광673-6836 •동 명222-9054 •동 부225-6001 •중 앙222-9054 •충 장222-8171
남구 •남 부673-6836 •백 운651-1833 •봉 선673-6836 •송 하675-6605 •진 월671-7276
서구 •광 천382-5788 •상 무372-2352 •서광주 369-1625 •운 천376-7153 •치 평376-6511 •풍 암603-0311 •화 정369-1625
광산구 •운 남952-1687 •월 곡959-1920 •첨 단973-2900 •하 남955-0451 •광 산944-0444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光州日報 · 예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